

“건강해야 바쁘고

건협에서 위투스 기사를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질병도 실로 다양화되고 많이 변화되어가고 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 가지는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같은 것은 병이 아니라, 어쩌다 생겼다가 지나가는 증상으로 밖에 평가(?)받지 못한다.

위염

▶ “주위에 소화불량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인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이젠 생각이 바뀌었다”고 유지현씨는 말한다.



힘든 생활도 견뎌내죠”

받고 위염 치료를 한 유지현 씨

그러나, 그렇게 사소한 소화불량이 나중에 알고보니 심각한 위장병의 시초였다는 것을 주위 사람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평소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다가 건강관리협회에서 위투시검사를 받고 위염을조기 발견해 치료에 성공한 유지현씨(23세, 서울시 구로구 시흥1동)의 경우를 보면서, 사소한 증상의 점검으로 부터 질병을 조기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느낄 수 있다.

근로자 건강검사 때 관리의사 선생님과 상담

유지현씨가 健協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지난 해 10월이었다고 한다.

『저희 회사에서 근로자 건강검사를 받을 때였습니다. 견협에서 이동 검진 차량을 가지고 와서 피도 뽑고, x-Ray도 찍었어요.

그때 다른 것보다 고마왔던 것이 관리의사 선생님과 상담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다른 병이 있을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지만 가끔씩 속이 쓰리고 소화가 잘 안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위가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어요. 의사선생님께서 저의 증상을 들으시고는 위장검사를 꼭 받아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소화불량

그러나 당시 그녀가 받은 건강검사에는 위장에 관계되는 검사는 없었다.

『그렇지만, 제 주위에는 저처럼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는 친구도 많았고, 요즘 사람 쳐놓고 위장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낸 후 유지현씨를 비롯한 동료들에게 건협외 건강검사결과 통보서가 배달되었다.

『저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 중의 한명에게 신장에 이상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었어요. 그 친구는 아침에 보면 언제나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부어 있곤 했었어요. 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그저 잠이 부족하고 피곤해서 그렇겠거니 했었죠.』

결과통보서를 받은 유양의 친구는 다음날 시간을 내어 병원을 찾았다. 그녀는 병원에서 신장염을 앓고 있음을 발견하고 바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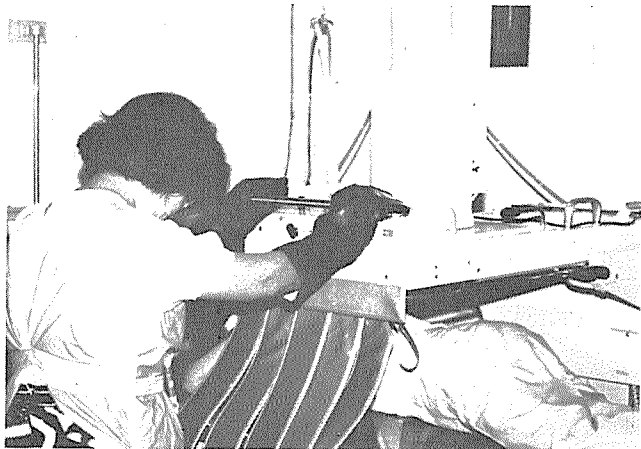
건강관리협회를 찾아 위투시 검사를 받았다

그것이 유지현씨에게는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주 사소한 증상이었는데 그렇게 병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보면서 저도 그냥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제가 심하게 아파서 직장이라도 잃게 되면 당장 제 동생지명군의 학비와 생활에 곤란을 겪게 될 것을 생각하니 겁이 나기도 했구요.』

▶ 조금 아프면 약을 사먹으면 나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무슨 병이든 원인을 찾아 정확히 치료해야 합니다.





◀ 근로자들에게 특히 많이 생기는 질병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검사의 범위를 확대 시켰으면 합니다.

유지현씨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부모님을 돕기 위해 동생의 학비를 부담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효녀이다.

『건협에서 건강검사를 받을 때 건협 서울지부 부속의원에서 위장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저는 2주일후 토요일 오후에 시간을 내어 건협을 찾아가 위장검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 예약을 해두었었죠.』

결과는 위염

그 검사에서 유지현씨는 위염을 앓고 있음을 발견했다.

『위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고 있긴 했었지만 막상 무슨 병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겁도 나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집에다 얘기할 수도 없었어요. 공연히 부모님들 걱정시킬 것 같아 혼자서 조용히 치료하리라 마음 먹었습니다.』라며 조용히 웃고 있는 유양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사소한 증상도 그냥 넘겨서는 안됩니다

『현대인들은 바쁜 생활 속에서 불규칙한 식사,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흔히 소화불량, 속쓰림 등을 호소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일반화되어 있어서 그런지 그것을 큰 병의 시작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죠.

또 사소한 증상에 대해서는 약국에서 약을 사먹으면 금방 없어지니까, 소화제 같은 것만 계속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병은 원인을 찾아내어 정확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병은 병대로 깊어지고 약에 대한 내성만 생기게 됩니다.

유지현씨의 경우는 금방 치료가 가능한 위염이었고, 또 초기에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위염도 오랜 기간동안 방치해 두면 위궤양이나 심하게는 위암까지 진전하게 됩니다. 건협 서울지부 부속의원장 이증범씨는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질병은 반드시 조기에 발견해내어 치료를 해야만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근로자에게 특히 많이 발생하는 질병에 관심을...

한편, 유지현씨는 건협에서 찍은 X-Ray사진을 가지고 『바로 병원을 찾아 갔습니다. 그리고 위염을 치료하기 위한 약을 병원에서 받아 왔습니다.

두달정도 치료하니까 속이 쓰리다거나 소화가 안된다거나 하는 증상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지금도 조심하고 있어요. 위염은 다 나았다고 해도 평소에 규칙적인 생활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재발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라면서 그녀는 평소에 건강을 해치게 되는 이유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으면서 조금만 부지런해지면 누구나 건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며 밝게 웃는다.

그녀는 또 『제 주위에는 저처럼 건강이 좋지 않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모두들 자신의 건강에 조금씩만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모두들 생활이 바쁘고 힘든다는 것은 알지만 건강을 지켜주지 않으면 이런 생활도 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라면서, 『건강협에서 받은 건강검사가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검사의 범위가 좀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근로자들에게 특히 많이 생길 수 있는 질병에 관심을 가지고 검사를 할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라고 덧붙인다.

어려운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유지현씨는 『동생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건강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더 없이 고맙게 생각되요.

제 손으로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싶습니다. 제가 하지 못한 공부를 동생이 다 해주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라고 말해, 기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책을 읽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유양은 이다음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글을 쓰는 사람이 되어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할 수 있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문학소녀이기도 하다.

유지현씨는 마지막으로, 『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계기를 준 회사와 건강협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강협이 언제까지나 건강을 지켜주는 훌륭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해, 기자의 마음에도 커다란 긍지와 힘을 주었다.

이른 아침, 동생의 도시락을 싸주고, 직장으로 향하고 있을 그녀의 힘찬 발걸음이 연상된다. 그 속에서 기자는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과 건강한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매우 흐뭇했다.